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제공일 2018. 3. 4.(일)
	2018년 3월 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김영주 팀장☎2110-1331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 이성웅 사무관☎2110-1333, syong2@korea.kr			

이효성 위원장, 영국과 방송통신 교류협력 확대 추진

- 영국 BBC · Ofcom과 방송통신 규제 및 공영방송 정책 협력체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3월 2일(금) 영국 런던에 있는 BBC(공영방송)와 Ofcom(방송통신규제위원회)을 방문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및 기술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BBC를 방문하여 BBC의 지배구조 변화 및 공영방송의 역할 그리고 외주제작사 육성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니 홀(Tony Hall) BBC 집행위원장은 “2016년 BBC 칙허장 개정에 따라 BBC Trust가 폐지되고,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영국 Ofcom으로 경영관리감독이 이양되었으며, 아울러 뉴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이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외주제작사에게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BBC의 노력 및 성과가 공영방송의 가치에 부합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BBC에 이어서 영국의 테렌스 번스(Terence Burns) Ofcom 위원장을 만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규제체계 마련방안과 EU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BBC 칙허장 개정에 따른 Ofcom의 역할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방송통신 정책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Ofcom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규제기관들과 방송통신 정책공유 및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